

S#1 조용한 독서실 or 카페 or 학교

문제집들이 펼쳐진 책상에 앉아 필기에 집중하는 학생들 포커스

공부하는 학생A,B (투샷, k.s dolly in)

무언가 떠오른 듯 학생B가 고개를 살짝 들어 A방향으로 몸을 돌린다 (b.s)

학생B

“야 오늘부터 투표 시작이라는데 같이 갈래?”

(b.s / o.t.s)

기대하는 눈빛의 학생B, 학생A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c.u)

학생B는 눈을 문제집에 고정한채로 귀찮다는 듯이 말한다

학생A

“관심없어 공부하기도 벅찬데 무슨”

(m.s)

학생B

“에이 그러지말고 같이 가자”

(m.s)

애교스럽게, 장난스럽게 아웅다웅하는 학생 둘

펜을 탁 내려놓으며 짜증스러운 말투의 학생A

학생A

“야 우리 이제 고3이야”(c.u / o.t.s)

소리치듯 화내는 학생1의 음성과 맞물려 직장인1의 짜증이 들려온다

S#2 건물에 사로잡힌 길거리

목에 출입카드를 차고 손에는 커피가 들려있는 직장인들이 거리를 오간다

피곤하고 지친 기색의 직장인A, 힘이 다 빠진 말투

직장인A

“나 이제 겨우 1년차야”

(b.s or c.u) -> (f.s)

직장인 친구

“너는 임마 사회인이 되가지고”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호통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큰소리에 약간 찌푸기며 전화기를 귀에서 약간 뺐다가 댄다. (w.s)

직장인A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투표는 무슨”

(b.s or c.u)

주변에서는 선거유세 or 투표유도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화면 안들어 가도 됨]

직장인 친구

“그래 그러니까 더더욱해야될거 아니야. 나 하나 짬이야 하는 생각이 제일 위험한거 몰라?”

직장인 친구

“너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꽃인 투표를 안하겠다는 말은 아니지?

투표는 민주주의 기초이고 뿌리야 어? 듣고 있어?”

누군가가 나눠준 투표 유인물을 받고 눈길을 주는가 싶더니 이내 구겨버린다

(f.s or k.s -> b.s -> 유인물 insert(high angle))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잔소리 듣는듯이 듣는듯 마는듯 하는 듯 시큰둥한 표정의 직장인A

직장인
“아 예..예”
(b.s -> w.s)

맥 없이 뉘 놓고 걷다 문득 앞으로 지나가는 학생 둘의 대화 (o.t.s / f.s)

학생B
“그래도 인생 첫 투표인데 해야지”
(b.s)

학생A
“아..ㅎ 진짜 시간 없다니까”
(b.s) -> (f.s)

A가 B손을 잡고 앞장서 걸어간다
궁시렁거리는 학생A, 얼핏 웃기도 한다 - 못이기는 척 친구를 따라감

학생B

“야 누구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잖아”	(장난투) -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한 길이 아닐까”	(진지투) - 생각에 잠긴 듯 자신에게도 하는 말

b.s -> o.t.s -> c.u

멀어지는 학생들 목소리와 수화기 속 친구 목소리
손에서부터 멀어지는 핸드폰과 (촉/M.S)
그 둘을 바라보며 멍한 얼굴에서
입술부터 피어나는 허탈과 희망의 웃음(eye level/C.U)

61초